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경허 선사(2)

문되, 경전으로 도배해도 됩니까?

답하되, 이 경계에 이르면 해 보게나

경허 선사가 연암산 천장암 인근 지장암이란 토굴에서 머물 때의 일화다. 엄동설한의 한 겨울을 토굴에서 홀로 정진하며 지내기로 한 스님은...



불상·경전·조사라고 하는 고정관념 훌쩍 뛰어넘어야 '평상심'의 자유로운 삶 가능

옳고 그름, 사랑하고 미워함이라는 양변(兩邊)의 분별심을 버리지 못한 중생심으로 이러한 해탈(解脱) 행위를 한다면 그는 흑흑한 땀을 지러야 할 것이다...

삼조승찬 대사는 <신심명> 첫머리에서 "지극한 도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요 단지 취사선택하는 것을 꺼려할 뿐이니, 미워하고 좋아함에 얽매이지 않으면 단박에 오롯이 알게 되리라(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고 하였다.

추한, 길고 짧음, 옳고 그름 등의 세간적인 분별심은 물론이거니와 선과 악, 중생과 부처, 보리와 번뇌 등 진리를 향한 길에서도 사랑분별을 잡지도 쉬지 않는다. 일체의 분별과 망상이 끊어진, 물들지 않은 무심(無心), 청정한 '본래의 마음[本來心]', 평상심으로 사는 것은 선(禪) 수행의 골수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똥자루' 버리는데 슬플게 뭐 있나?

명허 스님의 '좌탈' 계기로 살펴보는 '좌탈입망'의 의미

"미혹되면 생사가 시작되고 깨달으면 윤회가 사라진다." (갑산 <몽유집>)

몇 년 전 시작된 웰빙(well-being) 붐이 최근에는 잘 죽어야 한다는 의미의 웰다잉(well-dying)이란 신조어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웰다잉의 원조가 생과 사를 들로 보지 않고, 이를 초월해 생사를 자유자재로 누리는 선(禪)에 있다고 하면 지나친 건강 부회일가. 생사와 열반의 대립을 초월한 선사들의 '생사 즉 열반(生死即涅槃)'이란 깨달음의 삶과 극적인 입종이야말로 수행자들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던져주는 말없는 가르침에 틀림없다.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30분, 얇은 채로 입적(坐脫한) 용담당(龍潭堂) 명허(明虛) 스님은 생사가 본래 없는 '본무생사(本無生死)'의 도리를 다시금 일깨우고 있다. 2003년 입적한 조계종 제5대 종정 서용 스님에 이어 청원 탄광선원의 탄공 스님, 고창 선운사의 기산 스님, 범어사 청련암의 양익 스님에 이은 또 한번의 좌탈 열반상인 것이다.

세수 63, 법랍 38세로 입적한 명허 스님은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동리 해발 1000여미터 고지에 2칸에 토굴을 지어 12년동안 장좌불와(長坐不臥: 오랜 기간 눕지 않고 하는 참선)와 일종식(一肉食: 하루 한 끼만 먹고 오후엔 일체의 곡기를 끊는 수행)으로 용맹정진해 온 숨은 도인으로 알려졌다. 열반하는 날 미리 입적을 감지하고 토굴 500여 미터 아래에 거주하는 채로 좌탈한 것이다. 흥씨는 "스님께서 1주일전부터 몸져 누워서 시봉을 해드렸는데, 입적 당일 일찍 일어나서 목을 얹자마자 그대로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여수 흥곡사에서 2월 1일 봉행된 명허 스님의 초재.

선의 궁극적 목적인 생사 해탈 일깨우려 '生死不二'의 도리 보여주는 마지막 법문 '좌탈입망=깨달음' 아니지만 환희심 전해

예로부터 선가에서는 육신을 소멸해 없어질 곱데기와 같은 존재라 하여 일명 '똥자루'라 부르며 몸을 벗는 일에 대해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특히 선사들은 입종에 이르러 생사로부터 자유로운 경지를 좌탈입망(坐脫立亡: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대)이라는 극적인 모습을 통해 생생한 묵언의 가르침을 보여준 사례가 적지 않다. 삼조승찬 스님은 활을 거닐다 나뭇가지를 잡은 채 서서 열반하였고, 보화 선사는 요령 소리만 남긴 채 허공으로 사라졌으며, 등은봉 선사는 틀구나무 선 채로 열

반하였다. 관계 선사는 몸을 태울 화장나무를 미리 준비해 그 위에 서서 열반했고, 보조 국사는 제자들과의 백문백답을 마친 다음 법상에서 내려와 나무에 앉아 그대로 입적하기도 했다.

고승들의 이러한 좌탈입망은 선(禪)의 궁극적 목적인 생사로부터의 해탈에 있음을 일깨우는 마지막 법문이기도 하다. 때문에 생사의 근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무상(無常), 고(苦), 무아(無我)의 삼법인을 철저히 요달해야 한다. 모든 존재에 실체성이 없다는 무아와 연기법(緣起法)의 관점에서 보면 생(生)도, 사(死)도 실재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꿈과 환상같이 실재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생과 사가 모두 '토끼糞', '거북 털'과 같이 이렇듯만 존재하기에 생과 사가 다를 바가 없다. 즉 '생즉 사즉생(生即死 死即生)'인 것이다.

따라서 선가에서는 생과 사, 생사와 열반에 대해 분별하는 것을 망념으로 본다. 생사와 열반을 분별하여 생사는 싫어하면서 열반은 얻어야 할 절대적인 것으로 여긴다면 결코 생사를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열반의 참뜻은 '지금 여기'에서 생사로부터의 해탈을 그대로 체득하려는 가르침이다. 결국 피안(彼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차안(此岸)이 곧 피안이고, 세간이 바로



故 명허 스님

출세간이며, 생사가 바로 열반이고, 범부가 곧 성인이라는 '돌아닌[不二]'이치를 깨달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생사를 초월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좌탈입망이 그대로 완전한 깨달음의 필요충분조건은 아니지만, 생사에 자재한 그러한 모습만으로도 후학들에게 환희심을 주고 발심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다. 이번 좌탈한 명허 스님 역시 남이 알아주건 말건 평생을 지어왔던 용맹정진한 수좌(首座)로서 소리 소문없이 많은 스님과 신도들의 존경을 받은 스승이었다.

1944년 8월 17일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에서 전통 유학자이자 한의사인 이주천(李柱泉) 거사의 4남으로 태어난 명허 스님은 20세에 4서3경 등 한학을 통달했다. 5년간 마동리에서 서당훈장으로 4서3경을 가르치다가 문자와 세속 삶의 무상함을 느껴 지리산 화엄사로 출가해 69년 도광 스님을 계사로, 도천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수지했다. 화엄사 승가대학에서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오대산 북대와 상주 선역사 등 제방선원에서 운수안거의 세월을 보냈다. 이후 고향인 마동리에 산중토굴을 지어 장좌불와 수행에 들어갔다.

스님은 토굴수행을 하면서도 찾아오는 스님들의 수행을 지도하는 한편 불치병에 걸린 많은 신도들의 병을 낫게 하는 등 남모르게 보살행을 실천해 왔다. 12년간 상주 선역사 일대의 토지 1만여평을 연꽃마을에 기증하는 등 평생 무수히 많은 삶을 살았다. 특히 중국 소림사에서 수련자가 드문 <달마역근경(達摩易筋經)>을 수련, 본격적인 참선에 앞선 몸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스님은 <달마역근경>을 번역한 <역근세수(易筋洗髓)의 비결>이란 책을 무료로 보급하기도 했다.

한편 명허 스님의 다비식을 봉행한 화엄사 문도스님들은 스님의 사리를 화엄사와 상주 선역사의 부도에 봉안키로 했다. 또 스님의 유품인 사고전서, 대장경, 역경집성, 정통도장 등 3천 여권의 유·불·선·한학관련 회교도서는 유언에 따라 화엄사 도서관에 기증했다. 화엄문도회는 2월 1일 거행한 여수 흥곡사 초재를 시작으로 구례 천은사, 금산 태고사, 고양 선재정사, 고양 상운사, 예천 범룡사, 구례 화엄사 등에서 2재부터 7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여수 흥곡사=김성우 객원기자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안전운행의 선물! 삼재소멸의 선물!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영주표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영주자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닦쳐올 화를 미리쫓고, 금강의 지해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삼고금강저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향상품에지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서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중에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제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차벨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멜토에너지와 원외선외선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롱 벨트로 장과 간을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는데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발송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남성용소나노증지갑

여성용소나노 증지갑

옴마니반메흠 福지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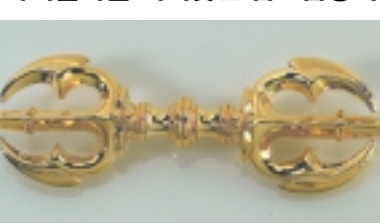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만돼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돼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운일들이 신통요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라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연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집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옴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요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났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던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연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돈이 헛되이 나가지 않게하는 팔십삼보병관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금소가죽에 金·銀·나노. 처리 까지만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로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 불광사에서는 옴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신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 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쫓는 삼고금강저



2007년 정해년은 600년만에 찾아온 재운이 넘치는 황금돼지해지만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는 앞으로 삼년 간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살을 시작하는 어려움해로 2007년에는 자중자애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세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 벌이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닦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큰환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 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닦쳐올 화를 미리쫓으며 금강의 지해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살인, 각종사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인연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